

“탈북보다 힘든 한국 생활…끈기와 열정으로 이겨냈죠”



제1부-희망 찾기

‘10년 근속’ 김철호 럭키킴속 과장



을 벌여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돈을 벌기는 커녕 공안에 쫓겨 숨어지내야 했고, 4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다. 4년의 시간은 그를 영영 돌아갈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결심했다. 초조·불안·공포에 떠다니 한국으로 가자고.

그는 탈북루트로 동남아가 아닌 몽골을 택했다. 동남가는 안전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탓이었다. 빠르면 3개월, 늦으면 10년도 걸린다. 그래서 위험하지만 몽골로 정했다. 몽골루트는 하얼빈을 지나 사막지대를 거쳐 몽골로 들어가는 코스다.

탈북은 위험하다. 밤에만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막은 더 위험하다. 사막에서는 구름이 끼면 방향을 가늠할 수 없다. 그도 탈북 강행 첫날 사막에서 길을 잃어 다녔지만 제자리를 맴돌았다고 했다. 브로커는 일정거리까지만 데려다주고 가버렸다. 브로커가 떠나면서 “40분만 더 가면 된다”고 했는데 4시간을 걸어도 국경은 나오지 않았단다. 날은 밝아왔다. 저 멀리 중국공안의 짐차가 달려오고 있었다. “큰일 났다. 붙잡히면 복송되는데...” 조바심에 안전부절 못하고 있는데 드디어

신변보호 형사 소개로 2008년 입사
낙하산 오해·색안경... 파카운 시선
현금인출기 사용법 몰라 헤매기도
北섬김학교 간사·밥상공동체 활동
탈북어르신에 못다한 효도하고파

어 국경 철조망이 나타났다. 함께 탈북한 이들을 모두 넘겨주고 간신히 그도 넘었다. 철조망을 넘자마자 몽골군이 나타났다. 구세주였다. 자신들을 뒤쫓던 중국공안은 헛물만 쉰채 발걸음을 돌렸다. 사막의 천막에서 일주일간 대기하다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로 이동했고, 2003년 7월7일 드디어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다. 북한을 떠난 지 꼭 4년 만이었다.

한국에서의 삶은 순탄할 줄 알았다. 그런데 남한 정착 역시 어려웠다. 북한 말투와 억양, 남한에서 자주 쓰는 외래어는 적응하기 어려운 관문이었다. 그는 “오랜 연습 끝에 억양과 말투를 고쳤지만 아직도 외래어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지금도 종종 현금인출기를 사용할 줄 몰라 길가던 아가씨를 불러세워 도움을 받았던 기억, 버스노선을 몰라 반대 방향의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를 반복했던 일 등 초기 정착할 때의 모습을 떠올린다.

김씨는 광주북한섬김학교(NK비전센터)에서 간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 자신도 새식구를 돕고자해서다.

NK비전센터는 탈북민을 중국에서 구출해오고, 탈북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선교단체다. 매주 토요일 ‘밥상공동체’를 운영하는데 어르신들을 모셔오고 모셔가는 일은 그의 몫이다. 어르신들은 그를 아들처럼 생각한다. 밥상공동체는 한 밥상에서 밥을 먹으며 작은 통일을 이루어간다는 의미가 담겼다.

그는 어려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못했다. 그는 “탈북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고향의 친부모에게 못해드린 효도를 하고 싶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평동산단 내 럭키킴속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철호 과장이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의 탈북민 사랑방 ‘카페 아르빈’에서 광주일보와 인터뷰를 마친 뒤 환하게 웃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북에서 가졌던 자존심 버리고 베풀어라”

김철호 과장의 10년 근속 노하우

김철호 과장의 10년 근속 노하우는 ‘자존심 버리기’다.

김 과장은 “성공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최선을 다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세상에 쉬운 일이란 없다.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라. 대한민국에 잘 살려고 온 것인 만큼 자기를 낮추고 모든 일에 성실하게 임하라”면서 “북한에서 쓰던 자존심을 버리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르는 걸 배우려는데 게을리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한 직장에서의 장수비결에 대해 “돈을

적게 받더라도 안정된 직장을 고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탈북민들이 남한을 택한 이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다. 하지만 돈이라는 것은 단번에 모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는 “직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힘들게 모았던 돈을 까먹을 수밖에 없다. 자칫 건강만 해치게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반으려고만 하지 말고 베풀라”고 조언했다. 그러면 탈북민을 바라보는 상대의 시선도 가까운 친척·친구·자녀처럼 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인지 그는 주중에는 회사 일에, 주말이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여념이 없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탈북민 근로 실태

월급 142만~144만원 한국 근로자의 절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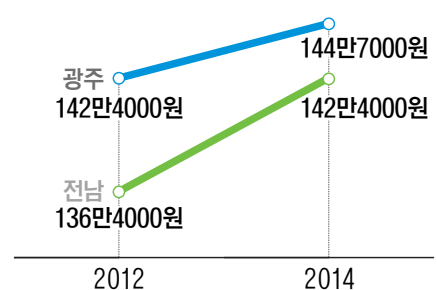
광주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근로자는 주당 48.3시간을 일하고 월평균 144만7000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탈북민은 이보다 적은 주당 46.6시간을 일하고 월급으로 142만4000원을 받았다.

8일 남북하나재단의 ‘2014 전라지역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지역 탈북민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2014년 기준)은 144만7000원으로, 2012년 142만4000원보다 2만3000원(1.6%)이 올랐다. 전남지역 탈북민의 월평균 소득은 142만4000원으로 2년 사이에 6만원(4.2%) 상승했다.

하지만, 이는 전체 탈북민 평균 145만1000원보다 낮은데,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324만원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그쳐 열악하다.

광주·전남에 사는 탈북민 근로자 10명 중 4명(광주 37.6%, 전남 43.8%)은 월평균 101만~15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고, 10명 중 3명(29.1%, 29.6%)은 월급이 100만원 이하였다.

■ 광주·전남 탈북민 월 평균 소득



광주 탈북민들이 일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이 31.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숙박 및 음식점업(17.8%), 도소매 및 유통업(10%), 건설 및 운수업(8.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6.6%) 등의 순이었다. 전남 탈북민들도 제조업(25.1%)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일하고 있고, 건설 및 운수업(14.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1.7%), 숙박 및 음식점업(11.2%), 도소매 및 유통업(8.9%), 농어업(5%)이 뒤를 이었다.

이들의 근로시간은 주당 평균 광주 48.3시간, 전남 46.6시간으로 40.8시간인 한국 전체 취업자의 평균보다 7시간가량 높았다.

이처럼 열악한 수준임에도 탈북민들의 만족도는 의외로 높았다. 남한 생활에 ‘만족한다’는 답이 광주 54.3%, 전남 59.9%에 달했고,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각각 7.3%, 5.6%에 불과했다.

탈북민의 경제활동 지표도 소폭 개선됐다. 광주 거주 탈북민 취업자는 2012년 52.5%에서 2014년 54.5%로 2%포인트 개선됐다. 전남지역도 같은 기간 49.7%에서 50.7%로 취업률이 늘었다. 실업률은 광주 탈북민 3.2%, 전남 2%로 2년전보다 각각 0.1%포인트, 4%포인트 줄었다.

취업자 대부분은 친구·친지·지인의 소개(광주 34.7%, 전남 43.6%)나 공공지원기관(22.8%, 19%), 신문·잡지 등 오프라인을 통해(19.7%, 17.3%) 직장을 구했다. 공공기관에서는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센터(71.2%, 76.5%)가 가장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연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교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